

John Galliano 작품에 표현된 웃음의 미학

장 애 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The Comic Expression depicted on John Galliano's Works

Ae-Ran Ja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5. 12. 14 투고)

ABSTRACT

The historicism and romanticism of John Galliano's designs are rivaled only by the spectacular and theatrical nature of his fashion shows ; romantic silhouette, the complexity of the cut and, of course, the painstaking attention to historical detail.

Galliano's approach is very much that of a British designer in that he absorbs wildly diverging historical and cultural elements to invent new hybridizations of the contemporary. Galliano started his career as part of the wildly uninhibited avant-garde London design scene. His designs were twisted and artfully torn, weird and also beautif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mic Expression depicted on John Galliano's works by borrowing the Comic. The Comic or the Comedy is a kind of art form that signifies exciting effects, and so, is a means of raising a laugh. The similar concepts of the Comic already were depicted by means of transformation and distortion of form, satire, fantastic pastiche and reversion of substances on Cubism, Dada, Surrealism, Pop Art and Postmodernism.

Therefore, John Galliano selected the quixotic expressional methods to seek for having playful fun. The aesthetics of the Comic is the beauty based on quantitative or qualitative contradiction between expectations and realizations. That is, the Comic is characterized by getting rid of stress through laugh with clarifying a subject of contradiction.

This study found that John Galliano's designs are expressed the quixotic comic on Historical image, Exotic image and Primitive image to make a complaint against the social evils.

Key words: comic expression(희극적 표현), historical image(역사적 이미지), exotic image(이국적 이미지), primitive image(원시적 이미지)

I. 서론

과거부터 '웃으면 건강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대인들은 웃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고자, 웃음을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웃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희극이고, 희극은 장르와 상관없는 희극적인 것의 조건 하에서 문학의 한 장르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웃음과 희극적인 것은 미학 이전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원인에서 초래된 현상에 기인하므로 이 현상을 다루는 학문분야는 다양하다. 즉 웃음이나 희극적인 것은 문예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생리학, 수사학, 철학, 미학, 심리학, 사회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이다. 이에 웃음을 일으키게 하는 희극적인 표현이 점점 확산되었고, 문학이나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유머스러움이 주 테마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머러스함이란 눈물 섞인 웃음, 쓴웃음, 희극에서 비극으로의 갑작스러운 도약 혹은 그 반대, 낭만적인 희극, 숭고의 반대, 위선에 대한 선전폭소, 울기에는 멧쩍은 동정, 실제로가 아니라 관념으로 웃는 것 등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결함을 알아차린 데에서 비롯된 불쾌함에 뒤이어 곧 바로 보다 더 큰 즐거움이 오는 것, 이것이 희극적인 것의 정의이다.¹⁾ 다시 말해서 유머러스한 삶 즉 희극적인 삶이란 명량 경쾌한 기분 가운데 인간의 본성이나 행위가 잔칫하고 있는 모순을 꼬집어 내거나 또는 사회적 병폐를 희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특수한 미적 효과로 행복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믹이나 희극적인 것은 일종의 예술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희극적이고 흥겨운 효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어떤 개념보다도 웃음을 일으키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유사개념들이 입체파, 다다, 초현실주의, 팝아트, 포스트모더니즘 등에서 형태의 변형과 왜곡, 풍자, 패러디, 내용의 반전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막스 이스트먼(M. Eastman)²⁾은 우스꽝스러움의 특징적이고 지속적인 힘에는 악의에 찬 비난 또는 그런 성격의 관심에 호소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즉 유희적 재미(having

playful fun)를 찾으려는 관심이 지배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작품의 돈키호테적인 우스꽝스러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들 속에서 유희적인 재미와 웃음을 찾으려는 희극적 표현의 방향을 설정해주었다고 본다. 그 결과, 유머러스한 표현들은 사회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전통적인 미의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형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여러 디자이너들이 활용하게 되었다. 존 갈리아노 역시 유희적인 재미를 찾기 위해 극적인 대조의 조화, 의식적인 성의 가시화,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과거의 양식에 희극적 표현을 새롭게 부각시킨 디자이너이다. 즉 갈리아노가 유희적인 재미를 찾기 위한 돈키호테적인 표현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기대된 것과 실현된 것 사이의 모순에 근거하는 미, 즉 기대된 것과는 모순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의외성 때문에 느껴지는 놀라움, 환멸감 등의 불쾌감이 희극적 표현에 의해 극복되면서 유발된 웃음이다. 갈리아노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신예디자이너로서 혁신적이며 정열적인 디자인, 완벽한 테일러링으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이너이다. 또한 그는 90년대 이후 실험적 성격을 띤 독창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연극적인 퍼포먼스로도 유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갈리아노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적인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병폐와 모순을 고발하기 위한 희극적인 디자인에 관한 학문적 연구나 이론정립이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갈리아노가 현대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어떻게 풍자적 디자인으로 묘사하여 웃음을 일으키게 하는지를 규명함에 있다. 이를 계기로 현대인의 삶이 반영된 패션의 희극적인 표현으로 웃음을 유도할 수 있는 미적 효과를 재정립해보는 것도 현대패션의 발전을 위해 의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위와 같은 의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미적 범주의 하나인 웃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또한 갈리아노의 로맨틱하면서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다. 2차적으로는 이론적 연구에서 고찰한 갈리아노의 디자인 특성을 바탕으

로 현대사회의 모순과 병폐의 고발은 물론 갈등 해소 위한 디자인을 어떻게 희극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는지를 분석·해석한다. 이로써 희극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에 내포된 함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단순히 웃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표현기법이 아니라 새로운 조형적 표현방법과 창조적인 발상을 더해주는 진정한 희극적 의미를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실험적인 디자인의 범위도 더욱 더 확대 가능하리라고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웃음의 개념

본 연구의 핵심어인 희극적(코믹, the comic, das Kosmische, le comique)이란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보거나 읽거나 듣게 될 때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다. 이 희극적이라는 용어는 ‘해학적’, ‘골계적’ 또는 ‘우스꽝스럽다’, ‘유머스럽다’ 혹은 ‘코믹하다’ 등으로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용어, 즉 웃음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개념의 용어인 ‘희극적’ 혹은 ‘코믹’이라는 용어로 기술하기로 한다. 이에 “웃음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은 희극적이다”, 또는 “웃음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은 코믹이다” 라는 재해석도 유도된다.

희극적(Komisch)이란 15세기 ‘희극에 속하는’ 의미로서의 프랑스어 ‘코믹(comique)’에서 수용되었다. 이 말은 어원적으로 라틴어의 ‘코미쿠스(comicus)’에서 유래되었고, 라틴어의 코미쿠스는 그리스어의 ‘코미노스(komikos)’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역시 ‘희극³⁾에 속하는’이라는 의미이다.⁴⁾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⁵⁾은 ‘희극적’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특성을 문화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즉 중세말기와 르네상스 시대의 카니발 축제(사육제 축제) 때의 웃음이 그리스어의 ‘희극적’이라는 말의 어원과 동일하게 다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카니발은 공식적인 축제와는 달리 당시 지배적인 진리와 기존의 사회질서로부터 잠깐 동안의

해방을 의미하며 동시에 잠시 동안의 기존의 위계질서와 모든 특권을 가진 사람들, 당시의 규범들과 금기사항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희극적’이라는 용어는 17세기에 그 개념이 확대되었으며, 오늘날 서양에서 특히 독일에서는 다양한 의미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흥겹게 하는’, ‘해학적인’, ‘즐거운’이라는 의미 외에도 ‘이상야릇한’, ‘진기한’, ‘기묘한’, ‘생소한’이라는 의미로서도 ‘희극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코믹(die Komik/comic)’이란 말은 19세기에 ‘희극적인 것을 묘사하는 예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었고, ‘수사학(Rhetorik)’이나 ‘미학(Ästhetik)’과 유사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코믹’은 일종의 예술형식이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희극적이고 흥겨운 효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분명한 개념으로 보아 희극적인 개념에 가깝다. 그러므로 코믹과 희극적인 것이라는 말은 처음엔 미학과는 관계없는 개념으로서 일상적인 언어의 사용 시에 접하게 되었고, 또한 비미학적인 현실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접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희극적인 것’은 미학문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웃게 하는 한 현상이다. 즉 희극적인 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서 비자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희극적’이라는 형용사와 같이 ‘희극적인 것’의 개념도 이중적인 의미⁶⁾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희극적인 것과 웃음의 관계를 살펴보면, 『철학의 역사사전(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제4권⁷⁾』에서는 웃음(das Lachen)과 희극적인 것(das Komische)이 동일한 표제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웃음과 희극적인 것의 개념이 상호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웃음의 현상과 원인, 나아가 웃음의 심리적인 반응이 희극적인 것과 동일함을 의미하므로, 웃음의 원인이 희극적인 것이고 희극적인 것의 결과로 웃음이 유발된다면 원인 없는 웃음이나 결과 없는 희극적인 것은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항은 헬무트 플레쓰너(Helmuth Plessner)가 그의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본 논문 「웃음과 울음(Lachen und Weinen)」⁸⁾에서 “본연의 의미에서 웃게 하는 것이 희극적인 것

이며, “희극적인 것에 대답하는 것이 웃음이다”라고 양자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웃음이란 용어는 다음의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일반적인 의미로 소리가 없는 미소에서 박장대소하는 홍소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단계들을 ‘웃음’이라 한다. 단지 웃을 때의 소리의 강도와 웃음의 형식은 개인적인 차이와 문화적·민(종)족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웃음의 여러 단계들이 존재하지만, ‘웃음의 감정(laugnter emotion)’이 바로 우리가 ‘웃음’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희극적인 것이 웃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말은 “모든 희극적인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의 감정을 유발하고, 이 감정은 적어도 웃게 하려는 경향을 그 자체 내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웃음의 감정’도 ‘웃음’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 웃음에 ‘비웃음’도 내포되어 있다. 즉 비웃음의 대상도 희극적인 대상이 되며, 이 대상은 우스꽝스럽다. 그래서 희극적 혹은 재미있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읽고 웃게 되는 것이다.

웃음의 동기들은 기쁨, 행복감, 오만 방자함, 즐거움, 자기만족, 조롱, 모멸감, 경멸,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비꼼, 반항심, 속임수, 교활함, 비열함,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웃음 등이며, 자연적인 웃음일 수도 있고 인위적인 웃음일 수도 있으며,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일 수도 있다. 사람은 기뻐서도 웃고, 정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웃고, 당혹감이나 절망감을 느낄 때도 웃으며, 그 외의 웃음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웃음에는 협의의 미학적 웃음의 범위를 넘어서 웃음의 유사 개념인 ‘희극적인 것’과 ‘코믹’, 그리고 이 개념들의 하위개념들인 유머(해학/골제), 위트, 풍자, 아이러니 등과 같은 개념들도 포함된다.⁹⁾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희극적 미는 기대된 것과 실현된 것 사이의 양적 또는 질적 모순에 근거하는 미이다. 다시 말해서 희극은 대상의 모순을 밝힘으로써 지성에 호소하며, 웃음 속에 해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질적으로 희극이란 원시적인 축제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 재담과 웃음이 넘쳐 있으며, 이 분위기 내에서 인간의 본성이나 행위에 숨어 있는 모순, 어리석음, 약점 또는 사회병폐 등을 묘사하여 미적 효과로 표현하였다.¹⁰⁾

따라서 복식에서의 희극적인 것은 그로테스크(grotesque)한 표현과 더불어 강조, 왜곡에 의한 주술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마치 어린아이들의 장난이나 전혀 기존의 미를 의식하지 못하며 개관적·논리적 유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형식을 통하여 은유적으로 현대문명을 고발하고 사회를 풍자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극적인 복식미는 원시주의를 주제로 하는 패션에서 흔히 나타나는 미적 범주로서, 자기표현, 개인적 자유, 모든 권위에 대한 반란, 전통의 거부를 은유적으로 묘사한다. 이와 같은 표현기법으로 갈리아노 역시 웃음을 일으킬 수 있는 희극적인 것을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풍자(satire)와 같은 예술표현기법을 통해 인간생활 특히 사회의 모든 부조리, 악행 등을 지적하고 조소하는 암시적 효과를 나타냈다. 그것은 풍자의 목적이 웃음이나 험담을 통해 인간의 잘못과 사회악을 치유하고 징벌하기 위함이므로 인간과 가장 밀접한 환경을 구성하는 복식이 풍자효과를 직접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갈리아노는 유머(Humor)와 같은 예술표현기법을 통해 일상 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 등으로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갖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갈리아노는 전통적인 미적 규범과 상반되는 기법들을 통하여 기대의 전복에서 웃음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2. John Galliano의 디자인 특성

존 갈리아노¹¹⁾는 영국의 보수적인 전통과 전위적이며 해체적인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이 혼재된 디자인을 매 시즌마다 발표함으로써 20세기 말부터 혁신적이며 독창적인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데뷔부터 역사주의와 로맨티시즘을 주제로 표현한 갈리아노는 실제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체의 감성을 형태화함으로써¹²⁾ 오프 꾸뛰르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 창의성을 아방가르드한 표현¹³⁾으로 현대의 오프 꾸뛰르를 새로운 혁신적인 모드로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라 할 수 있다.¹⁴⁾

갈리아노는 자신의 이름과 디오르의 수석디자이너로서 1년에 12회의 컬렉션을 개최한다. 갈리아노 자신의 이름으로 개최된 컬렉션은 전위적이고 해체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는 반면, 1997년 크리스찬 디오르의 50주년 기념을 위한 첫 번째 컬렉션에서 50벌로 디오르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발표한 것처럼 디오르 라인을 유지하면서 포스트모던적 특징인 의복형태의 해체, 분열을 통한 비정형화, 부조화, 콜라주, 과대장식 등이 표현된 환상적이며 감동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갈리아노의 작품들은 대체로 영화, 예술 그리고 광범위한 역사적 특징을 기본으로 불운의 미인에서부터 고급 매춘부에 이르기까지 혼성의 형태로 창조되었다. 다시 말해서 양식상 혼잡함은 있지만 그의 디자인에는 식민지 시대(Colonial)와 벨 에포크(Belle Époque)시대의 인용, 문화와 대중간의 융합 등이 함축되어 있다. 또한 여행을 좋아하는 갈리아노가 여행지에서 영감을 얻은 이국적인 스타일(exotic style)은 1990년대 디자인을 대표하던 캐주얼, 미니멀적이고 해체주의적인 특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그 외에도 갈리아노는 자신이 존경하는 Madeleine Vionnet 디자인에서 유래된 바이어스 재단을 재현하였다. 비록 갈리아노의 미학이 사치스럽고 파리 식일지라도 변형(transformation)을 위한 그의 추구에는 St. Martin's College of Art 시절이었던 1980년대 런던 아방가르드 클럽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디자인에 영국 문화와 복식전통을 묘사하기 위해 V&A, National Art Library와 같이 런던에 있는 박물관과 도서관을 다녔으며, 또한 작품에 대한 영감을 위해 영국클럽(British clubs)들을 다니곤 하였다. 왜냐하면 영국 클럽의 음악에서 야기된 에너지와 정열은 무서운 것이어서 갈리아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국은 스트리트 문화(street culture)가 매우 풍부한 곳이며

로 그 곳에서도 영감을 얻곤 한다.¹⁵⁾ 그 결과, 1990년대 후기 영국에 대한 갈리아노의 마음가짐과 에너지는 하우스, 테크노, 정글음악 등을 진지한 꾸뛰르 하우스에 융합시키게 되었다. 비록 갈리아노는 지금 파리에 적을 두고 있지만, 갈리아노의 접근법은 현대의 새로운 혼성모방을 창조하기 위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다른 영국디자이너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갈리아노의 작품 특성은 역사적 이미지, 이국적인 이미지, 원시적 이미지를 패러디¹⁶⁾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이는 갈리아노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갈리아노는 기발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환상적이고 희극적인 표현을 통하여 디오르의 엘레강스는 물론 심플, 엘레강스, 페미닌한 오프 꾸뛰르의 정형적인 아름다움에 부조화, 비정형성이 혼재된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가 시도한 디자인 표현기법은 드레이프나 개더로 전체 형태가 아닌 부분적으로 볼륨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비대칭, 비정형화된 스타일에 소매나 칼라를 과장하거나 해체시키며 속옷을 겹옷으로 전위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질적인 소재의 조화, 다양한 색상조화와 더불어 레이스, 러플의 과잉장식, 칼라나 네크라인의 강조, 다양하게 트리밍을 과장 혹은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갈리아노는 이미지 뿐만 아니라 형태도 변형, 파괴, 해체시킴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단히 고감도의 조형적인 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갈리아노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연극적인 기법¹⁷⁾으로 쇼를 연출하는 것이다. 매 컬렉션마다 서사적 테마와 구성을 스펙터클하고 연극적인 기법에 기본을 두고 있어서, 이를 위해 무대 디자이너들은 미국 쇼를 위해 마구간을, 서커스 링 혹은 카페 콘서트 등을 만들어야 했고, 변두리의 스포츠 스타디움을 40피트 길이의 가문비나무로 가득 메운 매혹적인 숲으로 만들어야 했다. 또 앉아있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박하 차를 서빙하는 모로코의 야외시장으로 변형시킨 아우스터리츠(Gare d'Austerlitz)의 플랫폼으로 들어서는 증기 기관차가 모델들을 등장

시키는 연극적 연출도 있었다.

그 외에 디테일에 심취한 갈리아노의 망상(환상)은 초대권에도 이어졌다. - 레드색상의 발레 슬리퍼, 녹슨 열쇠 등등. 물론 이러한 연극적인 수단 이면에는 갈리아노의 매우 뛰어난 테일러링의 숙련도를 찾아볼 수 있다.

Richard Martin¹⁸⁾이 기술한 내용을 보면 갈리아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라 사려된다.

“테뷔부터 재가 넘치는 자기본위의 역사주의자인 갈리아노는 점점 더 모든 역사적인 패러다임을 이해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갈리아노는 환상적인 패스티쉬(pastiche)를 위해 비오네에서 이국풍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수용한다.”

이상을 살펴본 결과, 존 갈리아노의 작품 특성은 크게 역사적 이미지, 이국적 이미지, 원시적 이미지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리아노의 발표 작품들 중에서 특히 현대문명을 고발하고 갈등해소는 물론 사회를 풍자하기 위한 희극적 표현으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분석·해석하기로 한다.

III. John Galliano 작품에 나타난 희극적 표현

1. 역사적 이미지의 희극적 표현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역사주의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없다는 개념 하에 역사라는 외적 조형성의 차용과 도입, 절충 등으로 의복의 미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므로, 복식의 환상적인 분위기 창조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이런 사실을 Christopher Breward¹⁹⁾에 의하면, 20세기 후반 꾸뛰르와 프레타 포르테 디자인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가 과거의 복식사를 참고하여 본래의 의미와 내용을 분리시켜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과거양식을 창조적인 재능으로 그려내는 자기 참고적인 특성이라는 것에서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은

역사적 복식양식, 특히 유럽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의상의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현대의 화려하고 로맨틱한 패션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존 갈리아노도 테뷔부터 역사주의자로서 역사적 의상의 로맨티시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이너이다. 즉, 로맨티시즘의 신봉자이며 역사가, 실험가로도 인정받는 갈리아노는 소재와 형태에 심취되어 역사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로 여성들을 동화속의 공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 속의 서양복식 스타일의 요소를 디자인에 도입하고 그것을 갈리아노식 낭만으로 해석하였다.²⁰⁾



<그림 1> Les Incroyables (Fashion Design, 143)

<그림 1>은 1983년 St. Martin 's College of Art 졸업컬렉션의 작품으로, 200주년 프랑스혁명 기념에서 영감을 얻어 발표한 'Les Incroyables'이다. 갈리아노는 프랑스혁명 후 '18세기의 영국 멋쟁이(macaronis)'와 '프랑스 집정부 시대의 멋쟁이(incroyables)'가 착용한 의상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1984년 런던을 휩쓸은 'New Romantic' 룩을 초래하였다. 즉 집정부시대의 프락 코트와 과장된 칼라, 스톡(stocks)의 역사적 요소를 도입, 절충하여 프락 코트의 의복형태 해체, 색상의 극적인 대조, 이질적인 소재의 혼합, 과장된 스톡 등의 이상야릇한 재배합으로 패러디하여 어리석은 귀족적인 이미지를 풍자하였다.

<그림 2>는 2000년 S/S boho-meets-hobo chic의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는 갈리아노가 아침마다 강가를 조경하면서 강가의 노숙자



<그림 2> 사회현상을
조롱하는 희극적 표현
(Collezioni No.75, 181)

<그림 3> 내용이 반전된
희극적 표현 (Collezioni
No.81, 220)

(부랑자)에게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다. 과거의 속옷 개념인 바스티에(bustier)는 이 당시 비싼 목걸이로 표현되었고 심지어는 고대 전투적인 방패로도 표현되었지만, 갈리아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숙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바스티에(bustier)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오히려 버려진 이질적인 천 조각들을 조각조각 이어 붙여 비정형의 무질서한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바스티에의 형태 변화는 물론 내용의 반전을 표출하였다. 또한 바지 위에 레이어드한 낡은 러그에 빗, 코르크 마개, 병, 숟가락, 영자신문 등 노숙자의 생활용품을 조립한 앳상블라주 기법에서 쓴웃음을 짓게 하는 심각한 사회현상을 조롱하는 듯 노숙자(부랑자)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은 2001년 S/S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는 딱딱한 여비서의 이미지를 반전시킨 섹시한 여비서의 모습으로 풍자한 디자인이다. 즉 역사적 요소를 도입하여 재구성한 콜셋을 걸 옷화하였으며, 돋수높은 안경, 구멍난 스타킹, 찢겨

나간 듯한 일정치 않은 스커트 라인과 콜셋에 새겨 놓은 굵직한 무늬, 비대칭, 비정형화된 형태에 이질적인 소재의 조화, 조각천을 이어 붙임으로서 형태가 완성된 의상과 독특한 메이크업으로 경직된 여비서의 이미지와 섹시한 여비서의 이미지가 희극적으로 병치됨으로써 웃음을 자아내게 한 작품이다.



<그림 4> 장난기 어린 즐거움 (Collezioni
No.96, 69)

<그림 4>는 2003-04 F/W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는 갈리아노의 장난기 어린 즐거움이 표현된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즉 과거양식인 슈미즈 드레스 위에 착용한 레이스 소재의 바스티에, 다양하고 상호 대립적인 장식 요소들의 결합, 비대칭의 프릴 및 러플의 요란한 장식은 물론 장난기어린 모습이 더욱 강조된 양쪽 머리의 러플과 깃털로 장식된 헤드 드레스, 어리석음이 표현된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은 위선에 대한 폭소를 자아내는 듯한 희극적 표현이다.

<그림 5>는 2004년 S/S John Galliano Prêt-à-porter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는 베이비 돌 풍파드르 부인 스타일의 과거양식을 패스티쉬한 것으로, 19세기 에드워드 시대의 빅토리아 도자기 인형을 아이러니하게 인용하였다. 즉 파우더를 잔뜩 바른 얼굴, 움푹 패인 눈, 보형물을 삽입한 큰 헤어스타일을 형



〈그림 5〉 아이러니한 베이비 돌 스타일 (Collezioni No.98, 226)



〈그림 6〉 풍자적인 공주패션 (Collezioni No.102, 178)

클어지게 연출한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쇼맨십의 대가인 갈리아노가 도자기처럼 창백한 빅토리아시대의 이미지를 이상야릇하게 표현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더욱 더 재미있고 섹시하게 하였다. 즉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웃음을 자아내는 듯하게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델의 눈 화장과 밝은 색의

립스틱 등의 어울리지 않는 조화를 통하여 울기에는 멧쩍은 모습이 코믹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6〉은 2004-05 A/W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즉 공주들의 크리놀린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타이트한 웨이스트와 과장되게 부풀린 드레스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풍자적으로 '공주패션'이라는 테마를 축으로 나쁜하고 무표정한 얼굴의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과는 모순되게 지나치게 과장된 오버사이즈의 크리놀린 스타일에 모피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무대에 등장하는 퍼포먼스에서 '공주병에 걸린 공주'의 내용이 반전된 오만방자한 이미지가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결론적으로 갈리아노가 표현한 역사적 이미지는 역사적 요소의 도입과 절충에 의한 재배합으로 과거 그대로의 재현이 아닌 시간적 모티브가 결합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더불어 형태 변화에 따른 내용의 전환, 착용 위치의 변화에 의한 목적 변화도 수반되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 외에도 부착되어 있는 고가의 가격표는 부유한 속물들과 줄부들의 과시욕을 풍자하고 조롱하기 위함이었으며, 핑크를 도용한 상징적 오브제를 사용하여 의복을 사회현상을 조롱하는 도구로 삼기도 하였다.

2. 이국적 이미지의 희극적 표현

1980년대 이후 현대패션에는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정신적 풍요를 중시하는 자연주의적 성향을 배경으로 에스닉 룩(Ethnic Look), 그런지 룩, 네오히피, 네오 클래식 등이 대두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비서구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표출하는 동양복식과 때 묻지 않은 원시성을 간직한 아프리카 복식에서 영감을 얻어 환상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에스닉 룩, 줌게는 오리엔탈 룩이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복식의 이국적인 이미지는 현대의 대량생산에 의한 동질화 및 획일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과 과학문명이 초래한 인위적인 혜택과 병폐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가속화되었고, 갈리아노 역시 이에 관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 예로, 동양을 단지 취미와 흥미의

대상으로, 또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보던 과거와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면서 동양적인 요소와 아프리카적 색채와 문양들을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위한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²¹⁾ 중국과 일본에 대한 자료는 갈리아노에게 디자인의 장식과 재단에 영감을 주었다.²²⁾ 그 외에도 서양문화에 물들지 않은 아프리카지역의 문양이나 장신구가 차용되기도 한다. 즉 디오르의 컬렉션에서 마사이족의 화려한 색조합을 지닌 구슬 장식을 꾸뛰르와 접목시킨 것에서 알 수 있다. 무지개 색으로 짠 코르셋과 아프리카 풍으로 섬세하게 디자인된 목걸이는 꽃무늬가 들어있는 스커트와 함께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

1984년 갈리아노는 자신의 라벨로 동양적인 직물과 스타일에 서양의 테일러링을 결합시킨 'Afghanistan Repudiates Western Ideals'이란 테마로 컬렉션을 개최하였다.²³⁾ 그리고 97 S/S와 97-98 A/W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에서 이국적 분위기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97 S/S 컬렉션에서는 자수와 타슬(tassel), 털장식을 이용하여 중국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즉 동양적인 색채와 타슬장식, 자수기법으로 수 놓여진 꽃문양 등이 서구적인 드레스와 접목되어 신비스러우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97-98 A/W에서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요부의 이미지를 중국풍으로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서 동양느낌의 실크, 앙고라와 점 문양이 있는 다양한 소재로 만든 치파오(chipao) 형태의 드레스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보강하기 위해 양산과 부채, 매듭이 달린 모자 등을 함께 코디하였다. 색채에 있어서도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 색과 금색을 매치시킨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으며, 동양적인 새나 꽃문양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7>은 2001년 F/W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는 일본 사무라이들이 착용하였던 포털 웨어에서 영감을 얻은 기모노 코트로, 사무라이의 정신을 오버사이즈한 디자인으로 표현함으로써 독특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실제가 아니라 관념으로 옷게 만든 우스꽝스러운 작품이다. 즉 동양복식의 평면적 형태에 이질적인 소재들의 대조, 과장, 부조화, 복합 등의 표현으로 사무라이의 정신

을 아이러니하게 패러디하였다고 본다.



<그림 7> 기모노 코트의 희극적 표현
2001F/W (Extreme body, 48)



<그림 8> 동서양풍이 병치된 희극적 표현 (Collezioni No.76, 378)

<그림 8>은 2000-01 F/W Galliano Prêt-à-porter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는 일본풍의 기모노 스타일의 블라우스, 서양풍의 원피스 및 속옷을 겹옷으로 전위시킨 콜셋을 절충하여 형태의 이상성으로 인해 기인된 웃음을 자아내게 한 디자인이다. 동양적인 평면형태 및 이미지 표현을 위해, 동양풍의 색채와 문양으로 구성된 소재와 입체적인 구성 등의 병치로 동서양 문화간의 융합이 코믹하게 표현되었다. 더욱이 동양의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메이크업과 동서양풍이 병치된 헤어스타일의 강조에서 이국적인 이미지가 더욱 과장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 인도풍을 차용한
희극적 표현 (Collezioni
No.92. 330)

〈그림 9〉는 2003년 S/S Galliano Prêt-à-porter 컬렉션의 작품으로, 신비로운 인도적인 요소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다. 즉 과장된 오버사이즈의 디자인, 인디고 블루로 한 바디페인팅, 형태가 왜곡된 사리와 과장된 소매, 깃털 트리밍, 이상야릇한 메이크업에 금속체인을 콜라주한 모습 등이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었다.

〈그림 10〉은 2003 S/S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는 중국의 민속의상의 형태를 해체, 왜곡시킨 작품이다. 즉 부드럽고 드레이프성



〈그림 10〉 중국풍을 차용한 희극적
표현 (Collezioni No.93. 205)



〈그림 11〉 티벳 공주의 희극적 표현
(Collezioni No.101. 348)

이 강한 소재가 인체곡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카울넥 드레스이다. 여기에서 동양적인 신비로운 이미지와 관능적인 여성 이미지를 재배치함으로써 동양 여성만이 가지는 은폐의 아름다움을 과감히 노출시킴으로써 오히려 갑작스런 도약에 의한 낭만적인 희극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중국의 두발양식인 쌍계머리형과 패치워크된 경극적 분위기의 메이크업은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위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2004-05 F/W Galliano Prêt-à-porter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는 티벳공주의 모습에 머리에 매단 티스폰, 실버 목걸이, 과장된 리본은 물론 프린트된 프락(frock), 동양풍의 이질적인 소재로 패치워크된 스커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앓상블라주 기법은 물론 일상생활의 오브제를 위치 전환시킴으로써 특유의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러플의 과잉장식, 다양한 트리밍 장식의 과장 및 강조, 과장된 리본장식 등이 흥겹게 하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갈리아노는 주로 비서구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표출하고자 동·서양을 접목시킨 이국적 이미지를 형태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동양적인 색채와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현대패션에서 인체의 선을 드러내지 않은 신비스러운 동양복식의 평면적 형태를 모방하거나 아니면 재해석한 의복에 관능성이나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하여 새로운 장르를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여성의 인체곡선을 강조할 수 있는 형태에는 신비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동양적인 색채를 지닌 재질이나 문양의 사용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3. 원시적 이미지의 희극적 표현

인간성 회복에 중점을 두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본성을 표출시키는 원시주의를 예로 들 수 있다. 프랑스의 라루스 사전에 수록된 원시주의에 관한 최초의 정의는 “원시적인 것의 모방”이다. 그 이후 웹스터 사전에는 “자연에로의 회귀를 함축하는 원시적 삶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것”이란 정의로, 에폴로지를 의미한다. 또 “물질적으로 덜 발달되고 문명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의 덕목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Robert Goldwater는 미학적으로 과거로 돌아갈수록 사물은 더 단순해지며, 따라서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 완전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William Rubin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부족 미술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창조하는 경향을 원시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20세기 초 예술에 활용된 원시주의란 자연에로의 복귀,

즉 원시적인 삶 속에 관념적으로 내재한 이상적인 우월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원시적인 이미지에 의한 유머러스는 유아기와 같은 순진무구한 시기의 특성과 같다. 내면의 상태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무의식의 상태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무의식 상태는 이성 중심의 서양세계에 반기를 든 반이성적인(irrational)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초현실주의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즉 반이성적인 흐름에서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듯한 어린이의 장난과 같은 유희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융합시킨 팝아트적인 표현기법에서도 희극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그림 12)



〈그림 12〉 유아적인
희극적 표현
(Collezioni No.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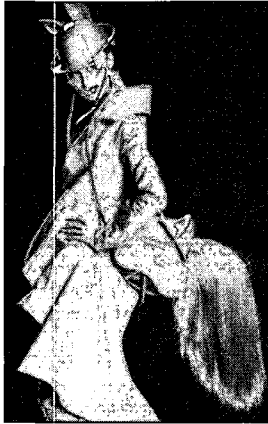
〈그림 13〉 혼재된 디자인의
희극적 표현
(Collezioni No.80)

〈그림 13〉은 2001년 S/S Galliano Prêt-à-porter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는 초현실적인 이미지와 팝아트적인 이미지가 혼재된 즐거움을 유발시킨 작품이다. 팝아트적 이미지의 완성된 재킷은 인체와 분리된 중첩에 의해 유머러스하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내면의 상태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무의식 상태의 초현실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원시풍의 밀짚모자 3개를 엮어 새로운 비정형화된 모자에 초현실적 이미지의 눈이 은유적으로 표

현되어 이중적 의미를 암시해준다. 즉 눈을 모자로 위치전환 시킨 희극적 표현은 의식적인 시각과 무의식적 꿈의 영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닐 테잎 등 미래감각의 소재인 비닐과 영자신문 프린트, 팝아트풍의 디자인을 위한 그래피티 기법과 재활용품을 응용한 재치 있는 스타일에서 즐거움이 유발된다.



〈그림 14〉야만적 전사의 희극적 표현 (Collezioni No.84)



〈그림 15〉 Sylvia ensemble (Emtreme Body, 103)

〈그림 14〉는 2001-02 F/W Dior Haute Couture 컬렉션의 작품이다. 이는 바이킹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전사의 이미지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다양한 색상과 무늬로 구성된 소재들의 작은 천 조각을 서로 꿰매 붙인 패치워크, 청동으로 만든 원시적인 투구, 모피의 장난스러운 접근,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놀라움과 우스꽝스러운 즐거움이 표현되었으며, 블루진과 모피와 같은 어울리지 않는 조화들은 갈리아노만의 독특한 희극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는 2000년 F/W "Sylvia ensemble", Dior Haute Couture의 작품이다. 이는 장난감가게에서 만화적인 당나귀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그의 위트가 보인다. 즉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융합, 이질적인 요소들의 대담한 조화, 액세서리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새들백이 더욱 코믹한 당나귀의 모습을 더해주었다.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융합시킨 표현기법, 원시주의 특성을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듯한 성질, 생태학적 형태가 단순한 의복선으로 표현, 인간과 자연이 융화된 표현과 토속적 표현, 입술의 위트 있는 표현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갈리아노의 원시적 이미지는 내면의 상태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려는 초현실적이고 팝아트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특히 팝아트적 이미지는 대중소비문화에 시각적 모방을 가져왔고 유아스러운 패션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융화된 표현과 토속적인 표현을 통해 원시적 이미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상을 살펴 본 결과, 존 갈리아노 작품에 나타난 희극적 표현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IV. 결론

존 갈리아노는 극적인 대조의 조화, 의식적인 성의 가시화,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과거의 양식에 희극적 표현을 새롭게 부각시킨 디자이너이다. 갈리아노가 희극적 표현으로 유희적 재미를 찾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기대된 것과는 모순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의외성 때문에 느껴지는 놀라움, 환멸감 등의 불쾌감이 희극적 표현에 의해 극복되면서 유발된 웃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적인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병폐와 모순을 고발하기 위한 존 갈리아노의 혁신적이고 극단적인 디자인에 묘사된 돈키호테적인 희극적 표현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현대패션의 풍자와 유머에 의한 희극적 표현으로 웃음을 유도할 수 있는 미적 효과를 재정립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갈리아노의 작품특성은 크게 역사적 이미지, 이국적 이미지, 원시적 이미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각 이미지별 희극적 표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존 갈리아노가 표현한 역사적 이미지는 역사적 요소의 도입과 절충에 의한 재배합으로 과거 그대로의 재현이 아닌 시각적 모티브가 결합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며, 더불어 형태변화에 따른 내용의 전환, 착용 위치의 변화에 의한 목적 변화도 수반되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 외에도 부착되어 있는 고가의 가격표는 부유한 속물들과 졸부들의 과

<표 1> 존 갈리아노의 작품 이미지 및 희극적 표현

디자인특성 및 기법	희극적인 것 / 코믹		결과
	작품 이미지	희극적 표현 풍자 / 유머	
전위적이며 해체적인 디자인/디오르의 라인과 포스트모던적 특성의 융합 □ □ □	역사적 이국적 원시적	-역사라는 의적 조형성의 차용, 도입과 절충 -역사적 요소의 도입과 절충에 의한 재배합 -과거의 복식사를 참고하여 본래의 의미와 내용을 분리시켜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 -내용의 전환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	놀라움 / 패감 / 우월감 웃음 유발
극적인 대조의 조화 의식적인 성의 가시화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과거양식 ↑ ↑ ↑		-문화간의 융합 -동양복식의 형태 모방 혹은 재해석 -아프리카적 색채와 문양 -동서양의 점목(동양적인 직물과 스타일에 서양의 테일러링을 결합) -새로운 장르의 가속화 -독특한 메이크업	
다양한 스타일의 혼재 및 병치 형태의 해체 및 왜곡 이질적 요소의 도입 풍자 / 패러디 내용의 반전 일상규칙의 위반 의설 복잡한 모순 강조 / 변형 / 부조화 분열을 통한 비정형화 콜라주/얹상블라주 레이스, 러플의 과대장식		-팝아트적 이미지와 초현실적 이미지가 혼재된 디자인 -원시적인 것의 모방 -원시적인 삶 속에 관념적으로 내재한 이상적인 우월성 -인간과 자연의 융화 -토속적인 표현 -정령(실재 자연물의 직접적인 인식) -> 주술적 의미 -우스꽝스러운 메이크업	

시욕을 풍자하고 조롱하기 위함이었고, 핑크를 도용한 상징적 오브제를 사용하여 의복을 사회현상을 조롱하는 도구로 삼기도 하였다.

이국적 이미지는 주로 비서구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표출하고자 동·서양을 접목시킨 디자인으로, 동양적인 요소와 아프리카적 색채와 문양들을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위한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되었다. 즉 현대패션에서 인체의 선을 드러내지 않은 신비스러운 동양복식의 평면적 형태를 모방하거나 아니면 재해석한 의복에 관능성이나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하여 새로운 장르를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여성의 인체곡선을 강조할 수 있는 형태에는 신비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동양적인 색채를 지닌 재질이나 문양의 사용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원시적 이미지는 내면의 상태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려는 초현실적이고 팝아트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특히 팝아트적 이미지는 대중소비문화에 시각적 모방을 가져왔고 유아스러운 패션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융화된 표현과 토속적인 표현을 통해 원시적 이미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암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묘사하여 풍자적인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로써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희극적 표현을 재정립함으로써 디자인의 새로운 장르를 가속화시키는 물론 새로운 조형적 표현과 창조적인 발상을 더해 주어 앞으로의 실험적 디자인의 많은 시도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1) 베네데토 크로체저, 이해완 역 (1975). *크로체의 미학-표현학과 일반언어학으로서의 미학-*. 서울: 예전사, pp. 168-169.
- 2) Eastman, Max (1936). *Enjoyment of Laughter*. New York : Simon & Schuster. 3
- 3) 희극(die Komödie)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코메디아 (comoedia)' 혹은 그리스어의 '코모디아(komodía)'에서 유래되었다. '코모디아'라는 말은 주신(酒神)이자 다산(多産)의 신인 디오니소스(Dionysos)를 위해 거나하게 취한 가장행렬을 의미하는 '코모스(kōmos)에 그 근원이 있다.
- 4) 류종영 (2005). *웃음의 미학*, 서울: 유포서적, p. 16.
- 5) 「라블레와 그의 세계(Rablais und sein Welt, (1987), p. 58.
- 6) '회극적'이란 말은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웃고 있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 즉 웃음을 유발시키는 것과 즐겁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의 의미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혀 웃을 수 없는 대상인 익숙하지 않는 것과 생소하게 하는 관점이 '회극적'이란 말의 두 번째 의미이다.
- 7) Wolfgang Preisenedanz (1976). "Komische (das), Lachen (das)" In: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lophie*. Bd. 4, Hrsg. von Joachim Ritter u. Karlfried Gründer, Basel/Stuttgart 1976, s. 889f.
- 8) Helmuth Plessner (1941). *Lachen und Weinen, Eine Untersuchung der Grenzen menschlichen Verhaltens*.
- 9) 류종영 (2005). *op. cit.*, pp. 13-23.
- 10)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1*. 서울: 교문사, pp. 215-216.
- 11) 본명은 후안 카를로스 안토니오 갈리아노. 1960년 스페인계의 어머니와 영국계의 아버지 밑에서 스페인의 Gibralter에서 태어났으며, 6세까지 그 곳에서 살았다. 그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님들은 그가 예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런던의 유명한 St. Martin's School of Art에서도 디자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텍스타일(색상과 소재)을 공부하였다. 1983년 졸업컬렉션에서 200주년 기념을 위한 프랑스혁명에서 영감을 얻어 발표한 'Les Incroyables' 작품들은 Browns사에서 전량 사들여 영국 패션위크기간에 전시를 하였다. 그의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컬렉션(1984년 10월)을 하였으며 재정적인 파산으로 인해 1990년 파리로 이주하였다. 1995년 지방사에서 1996년 크리스티앙디오르에 고용되어 couture와 기성복 컬렉션을 위한 디자인을 하였다. 그는 역사적인 의상과 전설에서 영감을 얻은 환상가이다. 1987, 1994, 1995, 1997년에 '올해의 브리티시 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
- 12) 갈리아노는 역사적 의상(historical costume)의 개념을 재해석하기 위해 획기적인 역사에 대한 환상에서 영감을 얻는 재능을 가진 몽상가이다. '나는 실제로 로맨틱하다. 그래서 내가 제작한 옷에서 로맨틱을 느끼길 바란다. 패션은 감정에 관한 한 나에게 음악과 같다. 나는 사람들이 음악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옷에 의해 움직여주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정장을 즐기고 그들 자신의 여자다움을 찬양하는 여성들과의 공범자로서 내 자신을 봐주길 바란다.' 갈리아노는 이 꿈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로맨틱 실루엣, 재단의 복잡성, 물론 역사적인 디테일에 정성을 들이는 손길로 역사적인 로맨틱을 표현하였다.
- 13) 1960년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프 꾸뛰르 디자인은 다양한 아방가르드적 이미지가 복합되고 병존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아방가르드는 기존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난 가치로부터 새로운 미적 가치의 추구, 새로운 조형질서의 모색, 그리고 새로운 표현방식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극단적이며 실험적인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질충주의와 혼성양식이 유행하는 다양성, 레트로 양식, 패러디 혼성과 모방에 관련된 콜라주기법, 장식과 과잉의 재해석, 복잡한 모순과 애매모호함의 간결성, 순수성, 합리성을 대신하는 가치로써 표현된다. 이는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이 혼재되고 병합하는 모순된 이미지의 조형작업으로 시도된다.
- 14) 과감하고 정열적인 디자인과 완벽한 테일러링으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현한다. 즉 1950년 크리스찬 디오르가 선물을 일으켰던 '뉴 룩'처럼 갈리아노의 혁신적인 의상들은 정교한 테일러링과 섬세한 디테일로 과감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 15) Amy de la Haye (1997). *The cutting edge-50years of british fashion 1947-1997*. The Overlook Press, pp. 192-200
- 16)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미적 장치로 취급된 패러디는 아이러니한 인용, 차용, 혼성모방과 같은 개념을 패러디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함.
- 17) 아르바이트로 했던 국립극장 의상 일은 갈리아노에게 잠재해 있던 연극적 요소를 일깨워주었음.
- 18) Curator, The Costume Institut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Adrew Tucker (1998). *The london fashion book*, Thames & Hudson, 43
- 19) Breward, Christopher (1995). *The culture of fashion*. New York : Menchester, p. 232.
- 20) Steel, Valerie (1997). *Fifty years of fashion - new look to now*. New Haven & London : Yale Univ. Press, p. 143.
- 21) *Ibid*, p. 154.
- 22) Mendes, Valerie (1999). *20th century fashion*. London: The Thames & Hudson, p. 254.
- 23) *Ibid*, p. 225.